

삼성·LG 등 잇단 신용등급 상향… 한국기업 경쟁력 재평가

글로벌 신평가, 재무 건전성 등 평가
삼전, AI 메모리 경쟁력 등 긍정 전망
삼성화재, 민간기업 최초 AA 등급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7월 삼성전자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강화로 향후 2년간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S&P는 향후 장기공급계약 및 맞춤형 제품 확대를 통한 사이클 변동성 완화가 확인되고, HBM 시장 입지 확대와 견조한 순현금 포지션이 유지될 경우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글로벌 신용평가사 S&P에서 'AA'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AA'는 대한민국 국가 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 민간 기업 가운데 첫 사례다. S&P는 등급 상향 배경으로 견고한 자산·부채(ALM) 듀레이션 관리, 새 국제 회계 기준(IFRS17) 도입 이후에도 유지된 우수한 자본 적정성, 안정적인 수익성과 내부 자본 창출 능력, 국내 손해보험 시장의 선도적 지위, 글로벌 사업 확대에 인한 지역 및 수익원 다각화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 및 증시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대기업 계열사



국내 주요 기업들이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 상향과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따능AI로 생성한 이미지

들이 S&P와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잇달아 'A등급'(A-, A3, A- 이상)과 '안정적'이라는 신용성적표를 받고 있다. 인공지능(AI) 거품 논란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 등 불확실성이 몰아친 시기에 한국 정부와 기업 특유의 '위기 관리' 능력이 진가를 발휘한 것이라 평가도 나온다.

◆'A'평가 잇따라

4일 신용평가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삼성, LG, SK 등 대기업 계열사들에 대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재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 1월 LG전자 신용등급을

기존 'Baa2'에서 'Baa1'으로 한 단계 올리고, 전망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했다. 무디스가 LG전자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무디스는 "지난해 주요 재무지표가 개선됐고, 향후 1~2년 내 실적 반등에 따른 추가 개선이 전망됨에 따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며 "LG전자가 자본 36.7%를 보유한 관계사 LG디스플레이의 실적 개선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LG전자의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대비 부채비율이 2024년 2.4배에서 2025년 2.1~2.2배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S&P도 지난 6월 LG전자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긍정적)에서 'B

BB+'(안정적)으로 한 단계 상향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장밋빛 평가는 S&P에 앞서 무디스가 먼저 움직였다. 무디스는 삼성전자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꿨다. 지난해 1월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지 10개월 만에 다시 '안정적'으로 복귀한 것이다. 신용등급은 'Aa2'를 유지했다. 이는 한국 국가 신용등급과 같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6월 국제 신용평가사 S&P로부터 글로벌 신용등급 'A-'를 받았다. 국내 방산·항공우주 기업이 S&P의 글로벌 신용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방산업체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록히드마틴, BAE 시스템스 등이다. S&P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대한민국 최대 방산업체로 평가하며 K9 자주포와 다연장 유도미사일 천무 등 주력 무기체계가 앞으로 글로벌 방산시장 성장에 따라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도 나란히 신용등급이 기존 A에서 A+로 상향됐다. S&P는 한화손보가 국내 손해보험 시장에서 쌓아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간 시너지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LS그룹 지주사인 LS는 일본의 대표적 신용평가사인 JCR(Japan Credit Rating Agency)로부터 'A0(안정적)'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자금 조달길 확대…글로벌 위상 ↑

국가 신용등급까지 매기는 3대 신용평가사 평가 등급은 장기 기준 S&P 22등급(AAA~D), 무디스 21등급(Aaa~C), 피치 20단계(AAA~D)로 나뉜다. 이중 A등급은 재무 상환 능력이 충분해 '투자 적격'으로 분류되는 중상위 등급.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수익성(매출 영업이익률 등) 분석은 물론이고 사업 포트폴리오, 지배구조, 시장 내 지위, 경영 투명성 등 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을 따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낮은 이율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나 위상을 높여 영업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A등급을 받으면 대외 신인도 상승으로 회사채 발행 시 유리한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 주요 기관들로부터의 투자 유치에 유리해진다"고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 및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성장의 큰 방향을 잡았다면 실질적 이행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K지형 양극화'를 해소하는 구조 개혁의 가속제달을 밟아야 한다"면서 "규제들을 걷어내 기업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기업 돈줄 마른다… 회사채·IPO 동반 '냉각'

금리 급등에 은행으로 발길 돌려
IPO도 위축… 상장·공모 규모 감소

한국은행의 금리인상과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 증시 불안이 더해지며 기업들의 자금 조달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기업들은 최근 회사채 금리가 급등하자 한 톨이라도 이자가 싼 은행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었다. 증권 기업 한 관계자는 "우리 같은 증권기업도 높아진 조달 비용이 부담인데 다른 곳은 오죽하겠나"라고 말했다. 자금 경색이 지속되면 한계 기업들은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갚지 못해 줄 도산에 처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8월 회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곳은 우리금융지주와 교보생명보험 정도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6일 27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할 계획이다. 교보생명보험(AA0)도 최대 4000억원 규모의 30년 만기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8월 예정된 회사채 수요예측 계획을 보면 은행 금융지주 및 대형 생명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제외한 일반 기업의 회사채 수요예측은 크게 감소했다"며 "8월은 계절성

으로 인해 회사채 발행이 크게 줄기는 하지만, 올해는 예년 대비 발행 부진이 더 심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도 회사채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유동성공급자(LP)를 맡은 증권사들의 증거금 부담이 커진 탓이다.

일부 기업은 회사채에 비해 발행이 상대적으로 쉬운 기업어음(CP) 발행을 늘리고 있다. 상반기 단기 회사채 발행이 990조 93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70조 295억원(90.4%) 늘었다. 특히 금융사와 일반기업 등이 발행한 단기 회사채 규모가 441조 9403

억원 늘어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같은 기간 CP 발행 금액은 45조 774억원(19.0%) 증가한 282조 7547억원에 달했다.

김 연구원은 "단기 금리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회사채 금리가 여전히 100bp 가량 높은 수준이고, 단기 금리 대비 회사채 조달 코스트가 높아 회사채 발행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 시기인 만큼 회사채 투자 수요도 좋지 않아 발행 스프레드가 확대될 우려도 크다"고 짚었다.

한껏 높은 몸값을 부르며 화려한 IPO(증시 상장)를 기대했던 유망 기업들도 최근 주식 시장이 망가지자 자세를 낮추고 있다. 사업 자금이 당장 급한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IPO에 나서고 있다. 기업공개(IPO) 건수가 작년 상반기 42건에서 올해 상반기 28건으로 감소하고 중소형 IPO 위주로 진행되면서 IPO 규모가 1조

141억원으로 4351억원(30.0%) 줄었다.

바이오 기업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최종 공모가를 희망 밴드 구간 하단인 1만 2000원으로 확정했다. 스트라드비전도 공모가를 희망 가격 범위 하단인 1만 2000원으로 확정해 증시에 상장했다. IPO 3수생인 박웨이브로보틱스는 지난달 1일 금융감독원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최초 2만 2000~2만 7000원으로 제시했던 공모가 희망 가격을 2만~2만 4000원으로 낮췄다. 그만큼 사업자금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 때 부도가 났어야 할 한계 기업들이 양적 완화로 생명을 연장해 왔지만, 자금 상황이 180도로 달라졌다"며 "구조조정과 글로벌 중앙은행의 긴축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퇴직연금도 성과 경쟁… 한투증권, 3년 수익률 123%

올 상반기에만 5.6조 자금 유입

한국투자증권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 상품에서 3년 누적 수익률 123%를 기록하며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우수한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조 6000억원이 넘는 퇴직연금 자금이 유입되는 등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공시'에서 자사의 '적극투자형 BF1' 포트폴리오가 3년 누적 수익률 123.34%를 기록해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직전 분기 공시 당시 3년 누적 수익률 93.17%보다 성과를 더욱 끌어올리며 전체 사업자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최근 1년 수익률도 51.49%를 기록해 증권(36.04%), 은행(33.04%), 보험(29.20%) 등 각 업권의 적극투자형 상품 평균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다.

운용 성과는 퇴직연금 자금 유입으로도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한국투자증권으로 유입된 퇴직연금 자산은 5조 66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유입액(4조 9300억원)을 반년 만에 넘어섰다. 이는 같은 기간 증권업계 전체 퇴직연금 순유입액 33조 5400억원의 16.9%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투자증권은 원리금보장형 상품 중

심의 시장에서 벗어나 실적배당형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6000억원, 지정 가입자 수는 14만명을 각각 넘어섰다. 디폴트옵션 적립금 가운데 적극투자형(30.7%)과 중립투자형(25.4%)을 합친 실적배당형 비중은 56.1%를 기록했다.

최종진 한국투자증권 연금혁신본부장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우수한 성과와 운용 역량을 갖춘 금융사로 자금을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차별화된 상품 라인업과 전문적인 자산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KB증권, 개인용 '오픈 API 서비스' 공개

국내·해외주식 시세 조회 등 포함

KB증권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Open API 서비스를 지난 7월 20일 오픈베타 형태로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Open API는 고객이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이나 외부 서비스에서 KB증권의 시세 조회, 주문, 계좌관리 등의 기능을 연동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다.

최근 24시간 글로벌 거래 환경이 확산되고 인공지능(AI) 기반 투자 분석 도구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도 API를 활용해 투자 정보를 분석하거나 매매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KB증권은 기업 간 거래(B2B) Open API 사업에서 축적한



시스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고객 대상(B2C)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API 투자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오픈베타서비스는 국내·해외주식 시세 조회를 비롯해 ▲주문·정정·취소 ▲잔고 조회 ▲체결 내역 조회 등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API를 포함했다.

/신하은 기자